

# 대 법 원

## 제 2 부

## 판 결

사 건 2022후10401 등록무효(디)  
원고, 상고인 주식회사 ○○○  
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현 담당변리사 김윤보 외 2인  
피고, 피상고인 피고 1 외 2인  
원 심 판 결 특허법원 2022. 6. 10. 선고 2021허5358 판결  
판 결 선 고 2026. 1. 15.

## 주 문

상고를 모두 기각한다.  
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## 이 유

1. 제2, 3, 4 상고이유에 대하여  
가. 구 디자인보호법(2025. 5. 27. 법률 제209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  
제3조 제1항 본문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 
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, 같은 법 제121조 제1항

제1호는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자(이하 '무권리자'라고 한다)가 출원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은 경우를 디자인등록 무효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.

구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, '디자인'이란 물품의 형상·모양·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(이하 통틀어 '형태'라고 한다)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(美感)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,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'디자인을 창작한 사람'은 바로 이와 같은 시각을 통한 미감을 일으키는 디자인의 창작행위를 한 사람을 가리킨다. 어떤 등록디자인이 다른 창작자가 한 디자인(이하 '대상디자인'이라고 한다)의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에 해당하는 경우, 그러한 변형이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(이하 '통상의 디자이너'라고 한다)이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하고, 그로 인하여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등 그 변형을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면, 이는 디자인 창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 그러므로 그러한 등록디자인은, 출원인이 대상디자인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이상,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,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무효로 되어야 한다.

나.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,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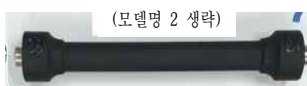
1) ○○○ 주식회사(이하 '소외 1 회사'라고 한다)는 2018년 초 원고와 주식회사 △△△(이하 '소외 2 회사'라고 한다)를 포함한 다수의 업체들에게 휴대전화 보호필름 부착장치 개발사업을 제안하였다.

2) 소외 2 회사는 소외 1 회사의 위 공동개발사업자에 선정되지는 않았으나, 소외 1 회사에 자체 개발의사를 표시하고 시험평가 참여를 요청하였다. 소외 2 회사는 2018. 3. 9. 소외 1 회사로부터 보호필름 부착장치 관련 자료를 받고, 2018. 4. 무렵부터 2018. 6. 무렵까지 3차례에 걸쳐 소외 1 회사 담당자로부터 컨설팅과 검증을 받아 롤러를 포함한 보호필름 부착장치를 제작하였다.

3) 소외 2 회사는 2018. 9. 14.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가장자리가 곡면인 '엣지형 디스플레이'는 아니지만 가장자리가 경사지게 설계된 소외 1 회사 스마트폰 '(모델명 1 생략)'에 적용되는 보호필름 부착장치인 입체롤러를 2단의 경사진 단차가 형성된 형태로 개발하였다.

4) 소외 2 회사는 2018. 11. 21. 다시 휴대전화 디스플레이 가장자리가 곡면인 소외 1 회사 스마트폰 '(모델명 2 생략)'에 적용될 수 있는 2단의 경사진 단차가 형성된 입체롤러를 제작하여 소외 1 회사에 납품하였다. 소외 1 회사의 담당자들은 2018. 12. 3. 내부적으로 2단의 직각 단차를 가진 입체롤러 제작을 검토하고, 같은 날 소외 2 회사에 입체롤러 제작을 의뢰하였다.


5) 소외 2 회사 직원은 대상디자인들인 ' (모델명 3 생략) , (모델명 4 생략) ,



형상의 입체롤러를 개발하였고, 소외 2 회사는 2018. 12. 14. 무렵 소외 1 회사에 이를 납품하였다.

6) 소외 1 회사는 2018. 12. 무렵부터 2019. 2. 무렵까지 소외 2 회사에 제품의 품질 개선을 수차례 요구하였고, 2019. 2. 무렵에는 원고에게 소외 2 회사로부터 납품받은 입체롤러를 전달하면서 제작을 의뢰하였다. 원고는 이를 실측하여 도면을 완성하고


2019. 5. 무렵 입체롤러를 제작하였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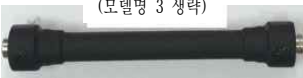
7) 원고는 2019. 11. 12. 위와 같이 제작한 입체롤러와 동일한 원심 판시 이 사건 등록디자인()을 출원하여 2020. 2. 24. 등록(디자인 등록번호 생략)을 받았다.



다.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.

1) 대상디자인들은 소외 2 회사 직원과 소외 1 회사 직원이 입체롤러에 대해 논의하면서 창작된 것이므로, 원고가 그 창작자라고 볼 수 없다.

2) 대상디자인들은 전체적으로 아령 형상이면서 롤러의 가운데 부분에서 양 끝 쪽 방향으로 2번에 걸쳐 두께가 두껍게 변하는 2단의 단차가 각각 형성되어 있다.

3) 원고는 소외 1 회사로부터 전달받은 소외 2 회사의 대상디자인들에 관한 입체롤러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그 형태 일부를 변형한 디자인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으로 출원하였다. 이 사건 등록디자인()은 대상디자인들

( (모델명 3 생략) 등)과 비교하여, 첫 번째 단차와 두 번째 단차 사이의 경사도와

폭이 각각 다소 완만해지고 길어졌고, 측면 외피(이 사건 등록디자인 '' , 대상디자인들 '' )가 다소 두꺼워져, 대상디자인들과 일부 다른 형태이다.

4) 앞서 본 여러 종류의 대상디자인들은 각각 첫 번째 단차와 두 번째 단차 사이의 경사도와 폭에 작은 차이가 있고, 대상디자인들의 측면 외피 두께는 금속 막대를 감싸는 재질의 두께에 따라 변하므로, 대상디자인들의 형태 일부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

같이 변형하는 것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흔히 취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.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위와 같은 변형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아령 형상이면서 양 끝 쪽에 2단의 단차가 있는 대상디자인들의 형태가 그대로 나타나 있어, 위와 같은 변형이 시각을 통하여 일으키는 미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. 따라서 이러한 변형을 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행위, 즉 디자인 창작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.

5) 이처럼 대상디자인들의 형태를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같은 형태로 변형한 행위를 디자인 창작행위라 할 수 없고,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인인 원고가 대상디자인들의 창작자나 그 승계인으로부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. 결국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무권리자의 출원으로 등록된 디자인에 해당하여 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,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.

라.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으나,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이 무권리자 출원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무효사유가 인정된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. 대상디자인들을 소외 1 회사가 단독으로 창작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항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어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.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무권리자 출원에서 디자인의 실질적 동일성, 디자인의 요부 및 디자인의 창작자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## 2. 제1 상고이유에 대하여

구 디자인보호법 제121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규정한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는 출원인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요건으로 할 뿐이다. 그 디자인이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(公知)되었거나 공연(公然)히 실시된 디자인에 기초한 것인지 여부는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와는 관련이 없다.

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, 무권리자인 원고가 출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대상 디자인들의 공연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무권리자 출원에 따른 디자인등록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.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디자인 무권리자 출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.

### 3. 결론

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임상필

주 심            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오경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대법관            권영준

대법관      박영재